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특강...김진애 건축가 '손목 리더십을 발휘하라'

# “광주, 타지역 사람들 말에 귀 열어야 리더란 팀 역량발휘 받쳐주는 대들보”



지난 19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최승호 가족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착하고 유능하게 손목 리더십을 발휘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건축가·정치인·저자 등 화려한 이력...삶 자체가 도전

### “특권·반칙 일삼는 정치는 리더십 본질 망각 하는 것”

“어느 때보다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나는 그것을 ‘손목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전의 리더십이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의 리더십은 개개의 주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최승호 가족(광주시 민속문화재 2호)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 김진애(62·전 국회의원) 건축가가 강사로 나섰다.

전통의 향기가 묻어나는 공간에서 펼쳐진 강연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김 박사의 강연 주제는 ‘착하고 유능하게 손목 리더십을 발휘하라’.

여러 신체 중에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고마움을 모르는 부분이 바로 손목이다. 그러나 열 개의 손가락을 떠받치고 뇌와 장기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위가 손목이다. 가족으로 말하면 대들보와 같다.

김 박사는 손목 리더십을 ‘착하고 유

능하고 독하게’로 풀이했다. “예전에는 착하다는 말이 다소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요즘은 ‘착한 소비’ ‘착한 가격’의 예에서 보듯 많이 쓰인다. 그런데 정작 착한 정부는 왜 없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착함’의 패러다임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치는 리더십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여는 여성과는 다른 행로를 걸어왔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당시 공대 학생 800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다.)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카이스트 미래도시연구소 교수를 거쳐 이후 2009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진출했다.

화려한 이력에서 보듯 그녀의 삶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었다. 94년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었고, 40여권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지금은 건축도시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을 총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다. 1남6녀 중 셋째 딸이었기 때문에 나만의 독립성을 키워야 했다. 독하게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가로서의 길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 일을 하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정책, 정치와 연계되는 부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어떤 분야든 역량을 펼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조화로운 관계가 전제되어야 했다.

김 전 의원은 독일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 그 답을 찾았다. 중세 이후 급격히 쇠퇴했던 도시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자급자족의 도시, 그린 관광도시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정부는 프라이부르크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은 너무 심기 등으로 원전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며 “주민들이 협동

조합을 꾸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해 나선 결과 오늘의 브랜드 도시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설계하느냐보다 왜,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자문한 결과라는 것이다. 도시의 경영, 도시의 정책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사례는 정책, 정치, 리더십, 시민의식, 미래 가능성 등 다양한 변인을 조화롭게 아우른 케이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빛고을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광주는 광주만의 색깔을 찾고 고민해야 한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광주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프라이부르크는 하나의 사례이지 똑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밖에서 보는 광주는 배타적 이미지가 강하다. 다른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어야 한다. 듣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

한편 1시간 여 강의가 끝나고 원우들은 정원에서 조촐한 파티를 가졌다. 정진욱 리더스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회원들은 노래공연을 관람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박정희기자skypark@kwangju.co.kr

##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공유

### 전남도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전시방향 공개

전남도가 오는 2016년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의 전시 방향을 ‘디자인을 소재로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공유의 장’으로 정했다.

전남도는 20일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란 주제의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의 세부실행계획 용역을 추진, 최근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고석만 총감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박람회장은 크게 3권역 9개 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디자인을 통한 친환경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하며, 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1단계는 박람회 주제 인지 구역으로 ‘인류, 그 끝을 향한 질주의 장’이다. 인류 발

전과 그로 인한 환경 위기 등 인류 발전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연출해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 친환경 삶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2단계는 박람회 주제 설명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혜의 장’이다. 환경 파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글로벌 추세와 전남의 친환경 소재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등 친환경 디자인 삶의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친환경 삶의 형태를 ‘새로운 삶, 시작의 장’ 형식으로 선보인다. 인류에게 주어진 자원과 기술, 아이디어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친환경디자인 선두기업 제품의 전시와 전남의 디자인 아이템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인류 미래의 패러다임을 공유한다는 의도가 녹아 있다. /윤현석기자chadoll@

## 긴장 감도는 광주·전남 교육청

### 감사원, 지방교육재정 실태 감사...누리과정 예산 등 파장 예상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20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초 예비감사가 이뤄진 데 이어 다음 달 본격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시설관리 ▲교육청 간 인사교류 등 교육청 조직·인력 관리 ▲세입과 채무 관리의 적정성 ▲교육청과 단위 학교 세출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이번 감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비롯해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상당수 포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편성, 광주형 혁신학교 확대 등 민감 사안들을 선두에서 추진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도 우려된다. /박정희기자 jwpark@kwangju.co.kr

## 檢, 홍준표 지사 불구속 기소 결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혐의를 둔 금품수수액이 어원구조사에서 회원들은 노래공연을 관람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박정희기자skypark@kwangju.co.kr

실상 굳혔다. 홍 지사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뇌물죄보다 범형의 양형이 관대하다.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인은 통상 2억원 정도를 실형 기준으로 삼는다.

수사 여건상 유죄 입증은 확실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구속수사를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7659-8900

가슴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기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